

<컴패션 뉴스레터 1964년 1-2월호>

(사진)

- 스완슨 목사가 최근 정부 당국이 데려온, 갓 버려진 소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더 많은 어린이들을 보았습니다.
- 대량의 비타민과 기타 의약품이 담긴 선적 컨테이너들이 한국에 막 도착했습니다.
- 기독의학회(Christian Medical Society)를 통해 컴패션에 제공된 위 의약품 샘플들입니다. 이 약품들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육원에 신속하게 배포되었습니다.

영화 <런어웨이(RUNAWAY)>

컴패션에서 새 영화를 풀 컬러로 제작했습니다.

28분 분량의 컬러 유성 영화를 소개합니다.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런어웨이(RUNAWAY)>는 한국 보육원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룬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촬영과 연출은 저희 서울 프래그런트 포레스트 보육원(Seoul Fragrant Forest Orphanage)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불행한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애정 어린 긍휼한 마음(compassion)을 전하는 훌륭한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는 어린이들과 어른들 모두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런어웨이(RUNAWAY)>는 옆 페이지에 표시된 대로 전국의 16mm 영상자료원에서 대여 가능합니다. 대여료는 15달러에 불과합니다. <런어웨이(RUNAWAY)>는 컴패션의 사역을 알리는 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주위 친구들이나 교회 그룹 등과 함께 상영을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자료원에 직접 요청하시고, 필요한 날짜를 세 개 정도 선택하여 보내주십시오.

<런어웨이(RUNAWAY)> 상영을 예약하려면 가까운 영상자료원에 문의하십시오.

(영상자료원 리스트: 원본 이미지 참고)

고아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창순(Lee Chang Soon)은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 중위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후원 프로그램의 가

치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청년의 삶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에 대한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위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 중 사망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피해 남한으로 피난했습니다. 3년 동안 구걸하며 길바닥에서 생활하다 창원의 시온 보육원(Zion Orphanage)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육원을 떠나면서 복음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그는 한국 해병대에 입대하여 중위로 진급했고, 현재 미국에서 상급 훈련을 받고 있으며 곧 목사가 될 것입니다.

کمپیشن과 신실한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을 준 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위의 이야기는 신실한 후원자들의 기도와 후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예입니다.

한국 정부가 کمپیشن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의 정희섭(Hi Sup Chung) 보건사회부 장관이 한국의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이 공문을 인쇄하여 모든 کمپیشن 후원자들에게 보내기 위해 사본을 준비했습니다. 매우 아름답게 디자인되었으며, 액자에 넣기 아주 좋습니다. 편지 인쇄는 한국에서 했고, 이 글을 쓰는 현재 시카고로 배송 중입니다. 언제 도착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혹시 이번 نیوسلیر 발송 전에 도착한다면 이번 호에 동봉하여 보내 드릴 것입니다. 이번 호 발송이 어렵다면, 다음 نیوسلیر과 함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신실한 کمپیشن 후원자들의 공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저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명예 학위를 받았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건국대학교로부터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준비는 한국의 교육부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서울에서 약 4,5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가장 우수한 교육 기관 중 하나입니다.

이 학위에는 데이비드 정(David Chung) 대학 총장과 김두훈(Doo Hun Kim) 대학원장이 서명했으며, 학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발전과 문화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본 서명인들은 1963년 11월 20일, 미국 시카고 소재 컴패션(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의 설립자 겸 대표이사인 에버렛 F. 스완슨에게 대학 규정에 따라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스완슨 박사는 그의 연설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 9장 10절의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려는 기독교적 긍휼과 간절한 열망이 수년간 이 사역을 계속해 온 동기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사역이 가능하게 한 수많은 후원자와 기부자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후원자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

이번 <컴패션>에 고아 사진 패킷을 동봉합니다. 이 사진 패킷이 실제 선교사 역할을 한다는 것이 경험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통해 수백 명의 새로운 후원자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을 친구들과 교회 그룹 또는 주일학교에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은 많은 궁핍한 고아들을 위한 새로운 후원자를 얻는 진정한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후원자가 없는 소중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로운 후원자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진을 보여 줄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새로운 후원자를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록에 따르면 사진 패킷이 포함된 단 두 권의 <컴패션>을 통해서 356명의 새로운 후원자를 만났습니다. 지금 사용해 보십시오!

소득세 관련 정보

고아에게 선물로 보내는 모든 상품이나 보육원에 일반 소포로 발송하는 모든 물품은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소득세법의 한도 내에서 새 상품의 실제 비용, 중고 물품의 공정한 시장 가치 및 지불한 우편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에 전체 금액을 입력하고 컴패션(구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에 기부했음을 명시하십시오. 한국 주소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모든 기부금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한국에 대한 나의 인상

(사진)

새로 부임한 컴패션의 R. E. 스와니(R. E. Swaney) 부대표가 서울에서 열린 한국대학생선교회(CCC)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연설하고 있습니다.

1963년 10월 14일, 로버트 E. 스와니(Robert E. Swaney)는 컴패션의 부대표로서의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스와니 부대표는 지난 6년 동안 국제기드온협회(Gideons International)의 국제사역실장으로 일하면서 전 세계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업무를 지휘했습니다. 몇 달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한 후 그는 컴패션의 설립자인 E. F. 스완슨 목사를 보조할 수 있는 부대표 직분을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스와니 부대표의 첫 번째 임무는 1963년 10월 14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 한국 현지 비전트립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이번 비전트립은 "한국에 대한 나의 인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컴패션 부대표로서 한국으로 오리엔테이션 성격의 비전트립을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진정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운영 현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63년 10월 14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국을 방문하여 그곳에서의 컴패션 사역을 보는 것은 제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컴패션 사역을 보면서 저는 몇 가지 분명한 인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보육원을 방문하고 보육원 원장님들, 전도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필요성들을 보면서 그 인상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컴패션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다음 세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사람, 장소, 목적* - 이 세 단어는 항상 저에게 컴패션의 의미를 나타낼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만나고 감동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같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 또한 동일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모두가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점에서 한국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오랜 역사를 지닌 민족으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더 많은 전쟁과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적군의 점령하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땅은 문자 그대로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한국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한국에서 본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작은 초가지붕의 농가 옆에서 성경 시대와 같은 방식으로 곡식을 타작하는 할머니,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거의 반은 들짐승처럼 보이는 어린 거지 소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서울의 도시인들은 스스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는

신실함에 따라 앞으로 계속 이뤄 가실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라이프 메신저스(Life Messengers)

이번 <컴패션> 호에 <히어즈 하우(Here's How)> 사본을 함께 동봉합니다. ²레이 W. 존슨(Ray W. Johnson)이 25년 전에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놀라운 소책자를 썼을 때, 그는 그것이 세계적인 사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히어즈 하우(Here's How)>의 결과로 인해 라이프 메신저스(Life Messengers)로 알려진 조직이 탄생했습니다. 라이프 메신저스는 컴패션이 지난 수년 동안 수백 명의 후원자를 만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히어즈 하우(Here's How)>는 거의 700만 부가 인쇄되었으며, 최근 존슨 형제는 그가 선교사들로부터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1,200만 부의 추가 인쇄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책자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인도되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이 책에 실린 수많은 감동 실화를 읽어 보시고, 영생을 위해 만들어진 성경읽기 계획을 꼭 확인해 보십시오. 아래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2월 1일까지 컴패션의 친구들에게 아주 특별한 가격으로 <히어즈 하우(Here's How)>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레이 존슨 형제에게 주문서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친구와 친척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모든 교회의 전도지 진열대에도 꼭 구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라이프 메신저스의 사역은 지난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지식으로 인도하는데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존슨 형제에게 보내는 답장에 기부금을 동봉할 수 있으며, 모든 기부금은 즉시 주님을 위해 쓰이게 될 것입니다. 소득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라이프 메신저스(Life Messengers)는 훌륭한 복음주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기도와 재정적 지원을 받을 가치가 충분합니다.

레이 W. 존슨 대표 라이프 메신저스(The Life Messengers) 3530 Bagley Avenue, North

¹라이프 메신저스(Life Messengers): 레이 존슨(Ray W. Johnson, 1912~2010) 목사가 1944년 설립한 미국의 기독교 출판사이며, 레이 존슨 목사가 쓴 <히어즈 하우(Here's How)>는 여러 언어로 6,500만 부 이상 인쇄되었다. 그 외 많은 기독교 소책자 및 전도지를 출판하였다.

²레이 월터 존슨(Ray Walter Johnson, 1912/03/03~2010/09/16): 1941년 무디신학대학교를 졸업했으며, 기독교 출판사 '라이프 메신저스(Life Messengers)'를 설립했다(<https://www.legacy.com/us/obituaries/seattletimes/name/raymond-johnson-obituary?id=17161595>).

Seattle 3, Washington

아래 수량의 <히어즈 하우(Here's How)>를 컴패션의 친구들에게 제공되는 특별 가격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 수표/우편환을 동봉합니다:

() 25부에 1달러 (정가: 15부에 1달러)

() 100부에 단 5달러

이름: _____

도로: _____

도시: _____ 주: _____

컴패션 우체통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고아들

지좌문법학교(Jee Jwa Grammar School)의 야구 선수들은 모두 저희 보육원 출신이며, 금릉(Keum Neung) 고등학교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우등생도 저희 보육원의 308번 어린이입니다. 이 어린이는 아직 후원자가 없습니다. 시온(Zion)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온윤재(On Yoon Jae)는 전국 웅변 대회에서 3등을 했습니다.

- 베다니 홈 보육원(Bethany Home Orphanage), 김대해(Kim Dae Hae) 원장

기쁨을 표현하는 후원자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춘희(Chun Hui)라는 사랑스러운 소녀를 저희에게 맡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소녀를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저희의 기쁨입니다. 또한 이곳과 한국에서 자신을 온전히 바칠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주의 이름 안에서,

- 일리노이주 오크 파크(Oak Park), P. M. 부인

전도사가 후원자에게 전하는 감사

저를 후원해 주신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편지가 제가 후원자님께 보내는 마지막 편지

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후원자님이 저를 지원하기 전에는 재정이 어려웠고, 그 당시에는 교회 자체도 상당히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성도들의 수와 교회의 체계 그리고 믿음에 있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미래에도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이용(Lee Yong) 전도사/원장

밝은 미래

다음은 한 고아가 보육원을 떠나면서 후원자에게 쓴 편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동안 저를 깊이 사랑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 후원자님의 지속적인 기도와 도움이 없었다면 이렇게 좋은 직업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보육원을 떠나는 것이 정말 싫지만, 앞으로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굿 사마리탄 보육원(Good Samaritan Orphanage), 26번 유인기(In Kee Yoo)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친애하는 스완슨 목사님, 컴패션이라는 훌륭한 조직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일을 계속해 주세요!

- 캘리포니아주, 사나 마태오(San Mateo), S. R.

후원에 감사하는 학생

제가 원하는 것은 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제게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 . .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 15번 도성찬(Doh Sung Chan)